

學校法人 城西大學

JOSAI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Promotion of Art and Science (JICPAS)

學校法人 城西大學
〒102-0094 東京都千代田区紀尾井町3-26
☎03-6238-1300
http://www.josai.jp/

Newsletter

학교법인 조사이대학 국제학술문화진흥센터
국제교류관 한글번역
國 際 交 流 版

Josai University Corporation
3-26 Kioi-cho, Chiyoda-ku, Tokyo ☎03-6238-1300 http://www.josai.jp/

No.2

한국 학교법인 건양학원과 자매교협정 체결

일시: 2006년 1월 11일 수요일

장소: 학교법인 조사이대학 도쿄기요이초 캠퍼스

2006년 1월 11일 (수), 도쿄 기요이초 캠퍼스에서 한국의 학교법인 건양학원과 자매교 제휴의 협정조인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내학(來學) 해주신 분들은, 학교법인건양학원의 김영이 이사장, 건양대학교 김희수 총장님, 김영순 국제교류부장 세분입니다. 당일은, 오전 중으로 조사이국제대학의 도가네(東金)캠퍼스의 여러 시설을 견학한 후, 도쿄기요이초캠퍼스에 오셨습니다. 1991년에 설립된 건양대학은, 한국중부의 논산시에 위치해 있으며, 학생 약 8000명이 재적하고 있습니다.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계의 약40여 학과, 대학원·대학병원을 설치,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종합대학입니다. 이번 협정체결을 통해, 조사이대학 및 조사이국제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JEAP 유학을 필두로 한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류의 선봉으로서, 2006년 4월부터 건양대학의 교환유학생 3명이 조사이국제대학에 파견되어 있으며, 이후 한층 더 심화된 교류가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Topics토픽

건양대학교로부터의 교환유학생

일시: 2006년 4월 11일 화요일

장소: 조사이국제대학

지난 4월 11일 (화), 한국의 건양대학교로부터 3명의 교환유학생이 내학하였습니다. 동(同)대학교와의 자매교 제휴를 1월 11일에 체결한 후, 불과 3개월이라는 짧은 준비기간만에 내학하게 되었음에도, 공항에 도착한 3명은 매우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3명이 모두 과거 2- 3회 내일(來日)한 적이 있으며, 따라서 일본의 공기에는 이미 친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조사이국제대학에서 지내게 된, 이제부터의 1년간의 유학생생활에 대한 포부에 대하여, 최장년자인 장세희 양은 “국제 감각을 몸에 익혀, 장래에는 자신의 사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으며, 장현준 군은 “귀국 후에는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좋은 선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라는, 최연소자인 차현주 양은 “경영정보학을 공부하는 한편, 세계를 넓게 볼 수 있도록 한눈 팔지 않고 유학생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각각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명 모두가 입을 모아, “일본인과 함께 사이좋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고한 목표를 가진 3명의 교환유학생의 존재는, 저희 대학의 학생들에게 필시 좋은 자극이 될 것입니다.



좌측으로부터 차현주 양, 장세희 양, 장현준 군

한국 이화여자대학교와 자매교협정 체결

일시: 2006년 1월 17일 화요일
장소: 한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2006년 1월 17일, 본교(本校)의 미즈타 노리코(水田宗子) 이사장이 한국의 이화여자대학교를 방문하여, 학교법인 조사이대학과 이화여자대학교와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1886년 미국의 여성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사숙(私塾)을 그 전신(前身)으로 하여, 1925년에 이화전문대학으로 개교하였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동(同)대학의 지명도나 평가는 매우 높으며,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최대규모의 여자대학으로, 많은 수의 우수한 여성학연구자를 배출하여 왔습니다. 미즈타 이사장은 신인령 총장님 및, 한일여성학회의에 함께 참가했던 장필화 대학원원장 등을 면회하여, 앞으로 기대되는 다양한 교류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환담하였습니다.

금후, 조사이대학 및 조사이국제대학과 이화여자대학교 간의 교환유학 및 공동연구 등의 다양한 학술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Topics 토포픽

2006년 9월부터 이화여자대학교에 교환유학생을 파견

조사이국제대학 대학원 인문과학연구과 비교문화전공(박사후기과정)의 이시지마 आयु미(石島由美) 양이 2006년 9월에 이화여자대학교에 교환유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同)대학과는 2006년 1월에 자매교 제휴가 체결된 직후로, 이시지마양은 제 1호 교환유학생이 됩니다. 이시지마양의 교환유학을 처음으로 하여, 양 대학간의 활발한 학술교류가 이루어 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시지마 आयु미 양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20주년 기념행사

일시: 2006년 5월 30일 화요일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5월 30일(화), 이화여자대학교의 창립 12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조사이국제대학 부학장 나카지마 신이치로(中島信一郎) 선생님이 학교법인 조사이대학 미즈타노리코 이사장의 대리로서 참가하였습니다. 나카지마 부학장은 이화여자대학 신인령 총장님에게 학교법인 조사이대학 미즈타노리코 이사장의 친서와 기념품을 전달하고, 축하의 말씀을 교환하였습니다.

그 후, 동교의 국제교육원 이재경 원장과 면담을 행하여, 금년 9월부터 일년간 교환유학생으로 파견되게 된 이시지마 आयु미 양의 연구계획서를 전달하고, 지도를 부탁하였습니다.



나카지마 부학장과 신 총장

학교법인 조사이대학 ·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일시: 2006년 4월 25일 화요일
장소: 학교법인 조사이대학 도쿄기요이쵸 캠퍼스

2006년 4월 25일(화), 도쿄기요이쵸캠퍼스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철 총장님, 대외협력처장 권석균 선생님, 한국어연수평가원장 허용 선생님을 맞아,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1954년에 설립된 한국외국어대학은, 서울시내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의 주요언어 39



고려신사에서

개국어의 외국어교육과 함께, 경제, 경영, 법학, 이공계의 각 분야를 갖고 있는 종합대학입니다. 또, 부속기관인 한국어연수평가원(한국어문화교육센터)에서

는 외국인에 대 상으로한 한국 어교육을 적극 적으로 실시하 고 있으며, 국 제사회를 향한 한국문화의 발 신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인식에서는 학교법인 조사이대학 미즈타 노리코 이사장으로부터, 총장님취임 직후의 시기에 한국으로부터 와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한국분야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조사이대학 및 조사이국제대학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 졌으며, 앞으로의 학술교류에 있어 내실 있는 교류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박총장님은, 도쿄기요이쵸 캠퍼스에 오시기 전에,

치바현 도가네시에 위치한 조사이국제대학을 방문하였습니다. 박총장님은 조사이국제대학이 자신이 방문한 세계 각국의 다수의 대학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훌륭한 인상을 남긴 대학이라는 것, 이곳이라면 한국의국어대학으로부터 많은 학생을 보내고 싶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 다음날인 26일(수)에는 사이타마현 사카도시에 위치한 조사이대학을 방문하였습니다. 학교법인 조사이대학의 기원을 알려드릴 수 있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후, 조사이대학 근처에 있는, 한반도와 인연이 깊은 고려신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신주(神主)로부터, 고구려로부터 이주한 이래 1300년, 60대 이상 계속된 이 신사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박총장님으로부터 동대학유학생의 견학 코스로 하고 싶다는 희망을 전해 받았습니다. 박총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이, 조사이대학과 조사

이국제대학 양 캠퍼스를 견학하게 됨으로써, 한국의국어대학교의 본교에 대한 이해가 크게 심화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의 학술교류협정을 처음으로 하여, 한국의국어대학교와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날이 눈앞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영국 Bath Spa University와의 학술협정 체결

일시: 2006년 5월 11일 목요일, 5월 17일 수요일
장소: 학교법인 조사이대학 도쿄기요이초 캠퍼스

2006년 5월 11일(목), 학교법인 조사이대학은 영국의 국립 Bath Spa University 와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동대학은 영국의 남서부, 바트 시(市)의 교외에



위치해 있으며, 1898년에 창설된 예술전문학교가 기원. 현재는 선진적인 전문 코스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종합대학으로서, 그 교육력과 실학성(實學性)으로 높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동대학은 투어리즘 매니지먼트 코스를 가지고 있으며, 대학이 위치한 바트 시(세계 유산도시)를 시작으로 유럽 각지의 관광국(觀光局)과 글로벌 기업과의 제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세(地勢)와 환경학을 베이스로 관광분야에 강한 대학으로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어학교육에도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교로서는, 유럽과는 바르셀로나자치대학에 이어 두 번째의 학술교류협정이 됩니다.

나아가, 5월 17일(수)에는 동대학의 국제활동부대표인



Ms. Rosalind Davies씨가 내학(來學)하여, 조사이국제대학의 도가네 캠퍼스 및 관광학부(아와캠퍼스)에 내학하였습니다. 관광학부에서는 학생들이 Davies씨와 만나서 시간을 마련하여,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때의 모습이 5월 18일(목)의 요미우리신문과 도쿄신문에 소개되었습니다.

그 후, 도쿄 기요이초캠퍼스에 내학한 Davies씨는 미즈타 노리코 이사장을 시작으로 조사이대학 및 조사이국제대학의 교원과 체결한 학술교류협정에 대하여, 영어로 활발하고 폭넓은 의견 교환은 나누었습니다.

금후, 동대학과는 조사이대학 및 조사이국제대학과의 교환유학 및 학술공동연구 등의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中國傳媒大學과 일본어교육·미디어교육에 관한 제휴

일시: 2006년 6월 6일 화요일

장소: 학교법인 조사이대학 도쿄기요이쵸 캠퍼스, 도가네 캠퍼스

2006년 6월 6일(화), 중국 傳媒大學으로부터 袁军 부학장, 黃侃 학부부장, 徐琴媛國際傳媒學院부원장, 張智琦國際傳媒學院아주어(亞州語)教研室 주임의 4명이 조사이국제대학에 내학하였습니다.



中國傳媒大學은 중국 미디어계의 다수의 인재를 배출한 실적을 갖고 있는 명문대학으로, 특히 중국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수한 아나운서 등을 육성한

고등교육기관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전 중에는 조사이국제대학의 이시다 마사미(石田益実) 부학장과 쿠라바야시 마사토(倉林真砂斗) 교무부장 등과 학생의 수용 사정에 대하여 정보교환을 행하였으며, 또한 미디어학부와 유학생별과와도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일본어교육 및 미디어교육을 중심으로한 학술교류에 관하여 <각서>를 교환하였습니다.

회담 후, 동대학 일행은 도가네캠퍼스를 견학하였습니다. 미디어학부의, 생중계 뉴스를 방송하는 수업 등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관하였습니다. 또한, 견학 도중에 미디어학부의 학생이 학생기자로서 동대학의 袁부학장을 인터뷰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오후, 도쿄 기요이쵸캠퍼스로 이동하여 본 대학의 미즈타 노리코 이사장과 면담하였습니다. 미디어의 발전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여성학, 관광사업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폭넓은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대학과 동대학이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공감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향한 공동교육연구 및 국제교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양 대학의 교류의 제1보로서 금년 9월부터 1년간, 國際傳媒學院으로부터 18명의 학생이 내일(來日)하여, 미디어학부와 유학생별과에서 수강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본대학과 中國傳媒大學과의 새로운 국제교육프로그램 협정에 따라, 양대학의 미디어분야에 있어서의 새로운 발전이 기대됩니다.

또한 2008년에 개최되는 베이징 올림픽에 있어서, 中國傳媒大學은 그 방송에 제휴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으며, 본대학과의 공동프로그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대학으로서는, 중국에서의 새로운 국제교육의 장이 확대되게 될 것입니다.



전미(全美)일본문학회(AJLS) 제15회 학회 개최

일시: 2006년 7월 1일 토요일 ~ 2006년 7월 2일 일요일

장소: 학교법인 조사이대학 도쿄기요이쵸 캠퍼스

7월 1일(토)~7월 2일(일) 조사이국제대학 도쿄기요이쵸 캠퍼스에서, 전미일본문학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으로 15회째가 되는 기념할만한 대회가, 처음으로 미국을 나와 일본에서 개최되게 된 것을 맞아, 조사이국제대학이 회



장교(會張校)로서 그 개최를 받아들여, 대회의장으로 이사장 미즈타 노리코 선생님, 대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인문학부장 미키 스미토(三木紀人) 선생님이 힘쓰셨습니다.



본대학 인문학부에서는 문학과 함께, 영상, 애니메이션, 회화 등의 시각문화를 통한 문화표상의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여, 미디어학부를 병설한 종합대학으로서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도는 본대학의 관광학부 개설 기념의 해이기도 하기에, 본대회의 테마를 <표상문화와 여행>으로 정하였습니다.

AJLS 학회 회원에 대해, 국내외의 여러 연구기관에 논문 발표를 모집한 결과 세계 10여 개국에서 100인을 넘는 응모가 있었습니다. 엄정한 심사의 결과 선정된 59명의 발표



프린스턴 대학교 시미즈 교수



헤르베르트 플루쵸 교수



분과회의 모습 인디애나 대학교 스미스 존스 교수

자료부터 열띤 연구발표가 본대학 4 곳의 대회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연구발표의 기회를 얻게 된 본대학 대학원의 대학원생 3명에 있어서도, 유익한 체험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조강연으로는, 프린스턴대학으로부터 일본미술사가 전문인 시미즈 토시아키(清水義明) 교수를 초청해, "Journey's tale and a Tale's journey: Studying Japanese narrative handscrolls abroad" 를 테마로, 자신의 인생을 여행으로서 되돌아보며, 두루마리 회화물 연구를 행해 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본대학의 미디어학부 객원교수이기도 한 고마츠 사이쿄(小松左京)씨가 등장하여, 대회장이 넘칠 정도의 많은 청중을 앞에 두고, 박람강기의 고마츠씨에게 걸맞는 <인간에게 있어서 여행이란 무엇인가>를 테마로 시공을 초월한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대학 인문학부의 헤르베르트 플루쵸 교수는 "Some characteristics of pre-modern Japanese travel literature" 를 테마로 하여, 주로 에도(江戸)시대의 기행문에 관하여 강연해 주셨습니다. 일련의 강연에 대해, 모여든 청중들로부터도 매우 흥미롭고 의미미한 강연이었다는 감상이 밀려 들었습니다.

발표자 이외, 각국으로부터의 학회 참가자도 120명을 넘는 국제학회로서, 첫날 학회의 종료후에 있었던 리셉션에 있어서도 다수의 참가자가 모여들어, 화기에애하게 그 교류를 깊게 함으로써, 내실이 많은 두번째 날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프린스턴대학이 개최교로 결정되었습니다.



고마츠 사이쿄 선생님과의 토크

중국 상하이시甘泉外國語中學 내학(來學)

일시: 2006년 2월 2일 목요일

장소: 죠사이국제대학 도쿄기요이초 캠퍼스

2006년 2월 2일(목), 상해시甘泉外國語中學의 劉國華 교장과 張婷 외국학생부 주임이 도쿄기요이초 캠퍼스를 내방하였습니다.

상해시 甘泉外國語中學은 중학부 1200명, 고등부 1400명이 재적하고 있으며, 그 중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 생도가 약 1000명, 영어와 일본어 2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생도가 약 300명으로, 일본어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학교입니다. 또 국제교류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Topics토픽

劉宇潔양 본 대학에서 인턴십을 실시

연수기간: 2006년 5월 10일(수)~5월 19일(금)
연수장소: 도쿄 기요이초 캠퍼스

甘泉外國語中學의 劉교장의 딸로, 리츠메이칸(立命館)태평양대학에 재적 중인 劉宇潔 양이 2006년 5월 10일(수)부터 본대학 기요이초 캠퍼스에서 약 2주간의 인턴십을 행하였습니다.

첫날에, 죠사이대학과 죠사이국제대학의 역사와 학부구성 등을 포함한 안내, 다음날부터는 교학사무실, 정보센터, 입시센터, 도서관 관리사무소에서 각각 수일씩 연수를 하였습니다.

2주간의 인턴십을 끝낸 유씨는 본대학에서 배운 일들로부터 대학운영, 특히 유학생 관리에 관한 몇 가지의 아이디어를 보고서 속에 제시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연수를 끝낸 유양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 받았습니다. "이번의 인턴십을 마련해 주신 죠사이국제대학 학장, 미즈타 노리코 선생님에게 마음으로부터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인턴십은 저의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2주간 저를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서대학교 교환유학생 송별 파티

일시: 2006년 3월 3일 12시 50분 ~ 13시 30분
장소: 조사이대학 사카도 캠퍼스

2005년 9월 8일(목), 한국의 동서대학교로부터 교환 유학생 2명이 조사이대학에 내학하였습니다. 동서대학교 일본어학과와 박경민양과 서지선양입니다.

박양은 고등학교의 수업에서 일본어를 이수한 것이 계기가 되어, 동서대학교 일본어학과에서 일본어를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서씨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일본만화, 드라마, 음악이 계기가 되어,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고, 한층 더 일본어 공부를 하기 위해 동서대학의 일본어학과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본 대학에서는 두 사람 모두 경제학부에 소속되었습니다. 경제와 경영에 대하여 배운 것은 처음으로, 처음에는 당혹스러움도 있었던 듯 하지만, 수업에 익숙해져감에 따라, 경제와 경영에 대해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3월 3일에는 조사이대학의 교직원식당에서 경제학부 주



박경미 양(왼쪽)과 서지선 양(오른쪽)

최의 송별 파티가 개최되었습니다. 파티에서는 경제학부의 교직원 뿐 아니라, 경제학부의 학생들도 참가하여, 화기에 애하고 멋진 파티가 되었습니다.

파티 자리에서는 두 사람의 수업을 담당했던 선생님께서 부터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라 놀랐다. 일본어가 이처럼 능숙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칭찬하는 놀라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사이대학의 학생과 두 사람이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서, 두 사람의 유학생 활이 내실있는 것임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말한 각자의 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선 박양의 장래 희망은 일본어에 그치지 않고 이런 저런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라 하며, 서양의 장래 희망은 외국어 관계의 일로 국제적으로 활약하여, 나아가 자신의 사업을 여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의 꿈의 실현에, 본 대학에서의 경험이 꼭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조사이국제대학 JEAP 학생귀국보고

장소: 조사이국제대학

2006년 3월과 4월, 2005년도에 조사이국제대학으로부터 파견된 JEAP의 학생들이 6개월부터 1년에 이르는 유학기간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17명<캘리포니아대학 리버사이드교(미국)9명, 세인트메아리츠대학(캐나다)7명, 카모스칼리지(캐나다)1명>이 파견되었으며, 3월과 4월에 걸쳐 그 중 11명이 귀국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출발시의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복잡한 표정과 전혀 다르게, 자신에 넘치는 얼굴로 공항에 그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저마다 유학한 곳에 대한 이런저런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호스트 패밀리나 유학한 곳에서 생긴 각국의 친구들과의 교류가 얼마나 즐거웠는가, 유학에 의해 얼마나 자기자신에게 자신감을 갖게 되었는가 등이 화제가 되었으며, 한결같이 “귀국하고 싶지 않았다. 좀 더 유학하



고 싶었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2006년도 전기 파견자는 14명입니다. 지금부터 출발하는 학생들도 귀국할 때에는 꼭 같은 기분이 되겠지요. 단번에 크게 성장하여, 국제적인 감각을 몸에 익혀 돌아와 주리라 기대합니다.

국제 교류연수

일시: 2006년 3월 10일 (금), 14일 (화), 16일 (목), 17일 (금)
장소: 국제연합대학

국제교류연수는 일본의 국제연합(UN) 관련 기관, 특히 UN의 국제교류활동을 직접 견학하고, 거기서 일하는 연구자와 직원의 활동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연합대학을 방문하였습니다. 국제연합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의 연구와, 전문가들의 사고 등을 이해할 수 있었고, 또 세계 규모의 환경보호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현장을 체험함으로써, 지구환경문제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볼게 된 연수였습니다.



복지문화환경연수

일시: 2006년 3월 5일 (일)~ 3월 13일 (월)
장소: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2006년 3월 5일 (일)부터 13일 (월)까지의 9일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복지문화환경연수가 실시되었습니다. 연일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정력적인 시설 견학이 이루어졌습니다.

Bear Cottage(어린이를 위한 호스피스)라는,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는 어린이들이 이용자인 시설에서는, 상대가 어린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숨기지 않고 함께 생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사자인 어린이에게 죽음을 숨기기 보다는, 죽음으로 가는 체험을 어린이, 가족, 직원이 함께 나누는 것이, 어린이에게 있어서 보다 깊은 배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The Spastic Center(장애자를 위한 자립생활시설)에서는 이용자인 장애자의 개인실이 회화와 포스



터 등 각 개인이 좋아하는 색으로 훌륭하게 장식되어 있어서, “시설”이라고는 전혀 다른 프라이버시에 대한 존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설운영자의 설명으로는, 장애를 가진 이용자 분들이 음성기(버튼을 누르고 말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써서 자신들의 의견을 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견학한 어느 것이나 모두,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어서의 시설이용자의 위상이,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환자(patient)로부터 다른 개성을 가진 이용자(client)로서 재해석되었던 경위가 그 배경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념이나 해석의 차이가, 복지의 대처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됨을 실감했으며, “복지문화” 연수에 걸맞는 내실있는 여행이 되었습니다.

미국 스페르만대학 • 모어하우스대학의 여름시즌 프로그램

일시: 2006년 5월 22(월)~6월 16일 (금)
장소: 죠사이국제대학 도가네 캠퍼스

5월 22일부터 6월 16일까지의 약 1개월간, 미국 아틀란타시에 있는 스페르만대학과 모어하우스대학의 8명의 유학생이 죠사이국제대학 도가네캠퍼스에서 일본어와 일본문화에 대하여 배우는 여름시즌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습니다. 내일(來日)할 때에는 영어로만 의사소통할 수 있었던 유학생들이, 귀국할 때 쯤에는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정열적임과 호기심에는

깊이 감동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유학생들은 일본어의 학습 뿐 아니라, 대화 파트너와 일본어 조연자들과 일본어 대화와 게임을 즐겼으며, 홈스테이의 가족들과의 단란한 한때를 보내는 것을 통해서 일본어를 연습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문화의 수업에서는 일본의 경제, 교육제도, 여성문제, 문학, 문화 등 다방면의 지식을 배웠습니다. 또 과외활동의 시간에는 기모노 입어

보기, 다도(茶道), 고교방문, 주변 견학등 일본문화를 체험하였습니다.

이처럼 유학생들은 언어 뿐 아니라, 다방면의 문화체험을 통하여 일본문화를 배워 귀국하였습니다.



일본의 학생들과의 교류



차도를 체험!



●안내도



고등안내

- 地下鉄有楽町線 麴町駅 1番出口로 부터 도보3분
- 地下鉄南北線·半蔵門線 永田町駅 9番出口로 부터 도보5분
- 地下鉄丸の内線·銀座線 赤坂見附駅 弁慶口로 부터 도보8분
- JR中央線·総武線 四谷駅로 부터 도보10분



學校法人 城西大學

 城西大學 / 城西短期大學  城西國際大學

〒102-0094 東京都千代田区紀尾井町3-26 TEL.03(6238)1300

學校法人 城西大學 <http://www.josai.jp/>

城西大學 <http://www.josai.ac.jp/> 城西國際大學 <http://www.jiu.ac.jp/>

學校法人 城西大學 國際學術文化振興센터

〒102-0094 東京都千代田区紀尾井町3-26
TEL 03(6238)1300 FAX 03(6238)1299